

18세기 이전 창세기 해석의 역사

정중호/계명대

1. 서론

16세기 말부터 중국에서 선교를 시작한 천주교 신부들은 천지창조를 설명하면서 선교를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전파될 때 가장 먼저 이야기 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저술한 교리서와 과학기술 서적들이 속속 조선으로 전래되어 여러 선비들이 읽게 되었고 이 서적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다. 안정복(1712-1791)은 주로 선교사들이 저술한 서학서가 조선에 들어와서 읽혀지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한역서학서의 조선도입은 17세기 초부터인데 서양서는 선조 말년부터 이미 동에 들어와 명경석유(名卿碩儒)로 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이것을 보기를 마치 제자(諸子)나 도불(道佛)에 속하는 것 같이 하고 서실의 완상물(玩賞物)로 비치하였다.¹⁾

이렇게 천지창조를 포함한 창세기의 내용이 교리서 혹은 과학기술서 혹은 기독교 비판자들의 글을 통해 16세기 말, 늦어도 17세기 초부터 조선에 소개되었고 해석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구약 해석사를 소개할 때는 여전히 1900년대부터 시작하고 있다.²⁾ 한글로 구약 전체가 번역되어 출판한 것이 1911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성경 해석사를 재구성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선의 선비들과 관리들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문성경은 중국성경임과 동시에 한국성경이기도 하였다. 발췌번역 성경과 교리서 뿐 만 아니라 성경 내용을 포함하는 과학 기술 서적도 한문으로 저술된 것은 조선의 서적으로 취급되어 널리 읽혀졌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번역된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들이 조선에 들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년 정도였고 한문서적이 입수되면 빠르게 필사되어 많은 유생들에게 유포되었다. 18세기 이전에 창세기의 내용이 포함된 한문 교리서와 과학 기술서적으로서 한국에 들어와서 읽혀진 것과 한국에서 저술된 신앙서적 가운데 중요한 서적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교리서	발행연도	저자
신편서축국천주실록 (천주실록)	1584 (1637)	마테오리치, 루지에리, 고메스
천주실의	1603	마테오리치
칠극	1614	뵘또하
직방외기	1623	알레니
삼산논학기	1625	알레니

1) 안정복, 「天學考」 『順菴先生文集』 권17.

2) 문희석, 「한국교회구약성서해석사: 1900-1977」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변조은, “한국교회의 성서해석사,” 문희석 편, 「구약성서해석학」(대한기독교서회, 1975), 307-339; Wang Tai Il, “Retrospect and Prospect of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구약논단」 37집 (2010), 12-26. 필자는 십계명 번역과 해석의 역사를 추적하여 구약성경 해석사를 16세기까지 확대시킨 적이 있었다. 정중호, “18세기 이전 중국과 한국의 십계명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50집 (2013), 318-347.

기기도설	1627	테렌즈
만물진원	1628	알레니
교요서론	1677	페르비스트
진도자증	1718	샤바냐
성세주요	1733	마이야
성교요지	1785	이벽
주교요지	1790	정약종

본 연구의 목적은 1800년까지의 창세기 해석사를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특히 조선에서 수용한 창세기의 해석사를 추적함으로써 한국 구약 해석사의 시작 시점을 20세기가 아니라 16세기 말까지 앞당기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한문으로 작성된 교리서와 조선 선비들에 의해 저술된 교리서와 신앙서적들을 분석할 뿐 만 아니라 한문으로 작성된 과학 기술 서적들과 기독교를 비판하는 서적들까지 분석 연구할 것이다. 따라서 창세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해설하고 소개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연구할 것이다. 특히 조선 선비들에 의해 해석된 것을 주목하여 연구할 것이며 조선의 선비들이 이러한 서적들에 대해 토론한 것도 포함하여 연구할 것이다.

추적 분석할 세부적인 논쟁점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고경(古經)’이라 불리우는 한문 구약성경이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조선에 들여와 읽혀졌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분석할 자료들 가운데는 이미 한글로 번역된 것도 있지만 아직 번역되지 않은 「천주실록(天主實錄)」, 「기기도설(奇器圖說)」, 「진도자증(眞道自證)」 등은 필자가 처음으로 번역하여 분석할 것이다.

2. 한문 교리서

1) 「천주실록(天主實錄)」

「천주실록」은 마테오 리치, 루지에리, 고메스 신부 등이 저술하여 1584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1592년에 이미 조선에 들어와 있었는데 “한 조선 병사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면서 매우 남아져 있는 교리서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하고 있다.³⁾ 「천주실록」에 보면, 천지창조를 해석하면서 먼저 전체를 개괄하였는데 강조한 점은, (1)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2) 6일 동안 창조한 내용의 요약 등이다. 「천주실록」의 특이한 점은 1-2일의 형식은 누군가 먼저 말하고 그 다음 대답하는 형식인 대화체로 기술되어 있으나, 3-6일에는 이러한 대화의 형식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천주실록」은 천지창조를 사람을 위해 창조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사람을 위해 집을 지은 것이라 설명하였다. 즉 땅은 집의 기초라 보았고 하늘은 집의 지붕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⁴⁾ 천지창조에 대한 「천주실록」의 본문은 아래와 같다.

前已明言天主之德，今以制作天地人物言之。自五千五百五十餘年以前之時，別無他物，只有一天主。欲制作天地人物，施之恩德。故於六日之間，俱各完成。第一日，先作一重絕頂高天，及其衆多天神，混

3) 두아르테 데 산데(Duarte de Sande) 신부가 1596년 11월 4일 마카오에서 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아르테 데 산데, 마카오, 1596년 11월 4일 [Japsin 13] 24 v. 재인용 Juan G. Ruiz de Medina, 박철 역, 「한국천주교전래의 기원」(서강대학교출판부, 1989), 41-42.

4) 或曰：“我今已知天主先日作地，譬如房屋之定基址。及成絕頂一重之高天，而覆乎世界萬物。譬如房屋之成其障蓋也。(어떤이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알았습니다. 천주께서 첫 날에 땅을 지으니 마치 집의 기초 터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리가 없는 하나의 거대한 높은 하늘, 그리고 세계 만물을 덮습니다. 마치 집이 이룩된 뒤에 막는 지붕 같습니다.”) 鄭安德編, 「天主實錄」明末清初耶穌會思想文獻彙編 第1冊(北京大學宗教研究所, 2000), 17.

沌之地水. 第二日 之所成者, 氣也, 火也, 九重之諸天也. 第三日, 則分其高者爲山, 流者爲水. 第四日, 則作之日月星辰. 第五日, 作禽飛於上, 漁鱉游於水. 第六日, 作百般走獸, 及人祖以生育乎人民 (전에 천주의 덕을 분명히 말하였다. 지금 천지 인물의 제작을 말하려고 한다. 5,550여 년 이전 시기부터 다른 사물이 없었고, 다만 한 분 천주만 있었다. 천지 사람과 만물을 제작 하려고, 은덕을 베풀었다. 그러므로 육일 사이에 각각 완성하였다. 제 일일, 먼저 하나의 거대한 끝이 없는 높은 하늘 및 많은 천신, 혼돈의 물을 만들었다. 제 이일에 이룩한 바는, 기(氣)이고, 불(火)이고 구중(九重)의 여러 하늘이다. 제 삼일에는 나누어서 그 높은 곳이 산이 되고, 그 낮은 곳은 물이 되었다. 제 사일에는 해와 달과 많은 별을 만들었다. 제 오일에는 여러 위로 나는 새를 지었고, 물고기와 자라가 물에서 놀았다. 제 육일에는 백가지로 옮겨 다니는 짐승을 짓고, 사람의 조상으로 인민(人民)을 생육하게 하였다.)⁵⁾

구약의 창조설화와 비교해보면, 구약에는 물과 땅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창조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비해, 「천주실록」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땅과 물의 창조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창조시기를 5,550년 전이라 계산하였다. 창조내용을 비교해보면 4-6일에는 구약과 거의 동일한데, 네 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으며, 다섯째 날에는 나는 새와 물고기가 만들어졌고, 엿새에는 짐승과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1-3일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날 「천주실록」에는 땅, 물, 하늘, 천신(天神) 등이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구약의 첫째 날 빛 창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하늘과 하늘의 신들을 창조했다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점이다. 둘째 날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주실록」에는 구중천(九重天), 불(火), 기(氣) 등이 창조되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구약에는 오직 궁창이 만들어졌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구중천(九重天)은 우주의 천체관을 설명한 것인데 당시의 우주관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기(氣)가 창조된 점을 강조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동양의 기(氣) 이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날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구약에는 채소와 나무 등 식물창조를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 「천주실록」에는 식물창조에 대한 것은 없고 '지당(地堂)'이라는 에덴동산의 창설을 언급하고 있다.

2) 「교요서론(教要序論)」

「교요서론」은 벨기에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南懷仁, 1623-1688)가 1670년 저술하여 1677년 북경에서 간행된 교리서다.⁶⁾

「교요서론」의 특징은 당시 천주실의와 만물진원이 천주교를 자연신학의 한 유형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천주교 교리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교리서라는 점이다.⁷⁾ 따라서 구약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교요서론 가운데 천지창조와 타락에 대해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 창조와 에덴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문체가 간결하고 명료하며 논리적인 이 책은 분량도 67면으로 소책자의 형태로 되어 있다.⁸⁾ 「교요서론」은 만주어(滿洲語)로도 번역되었으며 1801년 신유(辛酉)박해 이전에 이미 한글로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⁹⁾

5) 위의 책, 16.

6) 노용필, 「한국천주교회사의 연구」 (한국사학, 2008), 156.

7) 위의 책, 164-165.

8) 위의 책, 167.

9) 서종태 한건 편, 「천주교신자재판기록 (상)」 (국학자료원, 2004), 298-299.

「교요서론」은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천주는 무엇인가?’이며 그 가운데 1-11장이 천지창조에 대한 논의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천지창조에 대해 해석하고 있는데 2-5장에서는 천신과 마귀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리고 에덴동산에 대해 논하고 있다. 천주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한 번 명하심에 창조가 되는 전능하신 창조주임을 강조하였다.¹⁰⁾ 그리고 「천주실록」처럼 사람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천지창조를 해석하고 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집을 짓고 토지와 재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해석하기를 장인이 도구를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 듯이 천주께서 부모를 써서 사람을 내신다고 하였다.

특이한 것은 한글로 번역할 때 중간에 설명하는 내주(內註)를 첨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천주는 이 하늘과 땅을 내시고 신을 내시고(신은 형상 없스신 품이라)”에서 괄호 안의 내용을 내주로 첨가하였는데 작은 글씨로 첨가하였다.¹¹⁾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판단 되면 그 부분을 번역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남자는 모태에 있는 지 대략 40일이며 태가 이루어져 천주께서 곧 하나의 영혼을 주시며, 여자는 모태에 있는 지 대략 80일이며 태가 이루어져 천주께서 곧 하나의 영혼을 주신다”는 부분을 천주교가 정한 교리는 아니다 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 누락시켰다.¹²⁾

그리고 사람의 본집은 천당이요 이 세상은 나그네로서 잠깐 거하는 곳임을 밝히면서, 마치 전투에서 공을 세우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전투에서 공을 세우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해석하였다.¹³⁾

창세기의 내용은 오히려 신경(信經)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天主全能)’에 대한 내용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천주께서...만물을 창조하심에 재료를 구하지 않고 시각을 허비하지 않으시고 마음과 힘도 들이지 않으시고 아주 짧은 사이에 곧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못별과 신과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심에 한번 명하심에 곧 있게 되었으니...”¹⁴⁾ 그리고 사람 창조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구약 본문과 아주 근접하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에 서로 사랑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으니 남편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사람이 새와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고 사람에게는 총명을 주시어 자연 만물들이 사람의 명을 듣게 하셨다고 하였다.¹⁵⁾ 특이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나이를 중년(中年)이라 하였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 첨부하여 설명하기를 “이십과 삼십 된 사름이란 말”이라고 하였다.¹⁶⁾

선악과와 타락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하고 있다. 선악과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에덴동산에 두었다고 해석하면서 선악과를 먹는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 천주와 같이 되고자 먹었다고 하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형벌을 받았는데 그것은 에덴동산으로부터 추방시킨

10) Ferdinand Verbiest, 노용필 역, 「교요서론(教要序論)」(한국사학, 2013), 제1부 2장, 29-31, 제3부 2장, 88-89.

11) 위의 책, 제1부, 1장 28.

12) 위의 책, 제1부, 4장, 36.

13) 위의 책, 제1부, 9장, 44-45.

14) 위의 책, 제3부, 2장, 89.

15) 위의 책, 제3부, 4장, 93-94.

16) 위의 책, 제3부, 4장, 93.

것이라 하면서 “마치 변방의 고통스런 땅으로 귀양을 보낸 것과 같았다”고 설명하였다.¹⁷⁾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였기에 자연 만물도 사람의 명을 따르지 않아 가시덤불도 나고 짐승들도 사람을 상하게 한다고 해석하였다.¹⁸⁾ 그리고 영혼이 받는 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타락 전에는 자연스럽게 선을 행할 수 있었으나 타락 후에는 육신이 영성의 명을 듣지 않게 되어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였다.¹⁹⁾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다고 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길을 마련하셨다고 하였다. 또한 원죄(原罪)에 대해서 강조하여 설명하였는데 “사람이 어미의 태에 있음에 곧 원죄에”물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치는 마치 국가가 죄인을 벌하여 변방에 추방하면 자손 대대로 그 벌을 면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해석하였다.²⁰⁾

3) 「진도자증(眞道自證)」

「진도자증」은 프랑스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샤바냐(Emeric Langlois de Chavagnac, 沙守信, ?~1717)이 1718년 저술한 교리서로 18세기 중엽, 북경을 왕래하던 사신들에 의해 조선에 전해졌다. 이 책은 이승훈, 이벽, 권일신, 정약종, 정약용 형제 등 한국 교회 창설자들과 여러 실학자들에게 읽혀졌다.

「진도자증」은 사람 창조와 타락에 대해 특히 강조하여 설명하였는데, 인류의 유래가 원조(原祖)인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되었으며 “원조의 성정이 선하고 지극히 아름답다(原祖性情純善至美)”고 하였다.²¹⁾ 그리고 원래 아담과 하와는 살아서 천당에 올라 신(神)의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만물은 “신하가 군주에 충성함같이, 아들이 아버지를 효도함같이” 사람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면서 인간중심의 창조를 강조하였다.²²⁾ 그리고 “천주는 근본 사람의 대주(大主)가 된다”고 하면서 동시에 천주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²³⁾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임금과 신하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았다. 그리고 요구되는 것은 충(忠)과 효(孝)라고 해석하는데 이는 유교의 정신을 의식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물(物)이 주(主)가 되고, 물(物)은 사람의 원수(仇)로 변했다”고 하면서 사람과 자연과의 주종관계가 역전되었다고 해석하였다.²⁴⁾ 그리고 사람은 형체(形體) 곧 몸에 부여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하였다. 원조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는 병고가 생겼고 그 벌은 자자손손 받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원죄를 강조하는데 “벌 거승이로 땅에 떨어짐에(태어남에) 죄인 아닌 자가 없다”라고 하였다.²⁵⁾

이외에도 천지창조를 포함하는 창세기의 내용이 소개된 교리서로는 「삼산논학기(三山論學記)」와 「성세추요(盛世芻蕘)」를 들 수 있다.²⁶⁾ 그리고 구약의 지혜문학을 많이 인용하면서 일

17) 위의 책, 제3부, 5장, 96-97.

18) 위의 책, 제3부, 5장, 98.

19) 위의 책, 제3부, 6장, 98-99.

20) 위의 책, 제3부, 6장, 99-100.

21) 鄭安德編, 「眞道自證」明末清初耶蘇會思想文獻彙編 第二十冊 (北京大學宗教研究所, 2000), 47.

22) 위의 책, 48.

23) 위의 책, 48.

24) 위의 책, 49.

25) 위의 책, 49.

26) 「삼산논학기(三山論學記)」는 선교사 알레니(Aleni, 艾儒略)의 저서로 1625년에 출판되었으며, 「성세추요(盛世芻蕘)」는 선교사 마이야(Mailla, 馮秉正, 1669-1748)의 저서로 1733년 북경(北

꿈 가지 유혹을 이기는 방책을 소개한 「칠극(七克)」에도 창세기의 소돔 이야기(창 18:20-21)가 소개되어 있다.²⁷⁾

3. 과학기술서에 포함된 창세기의 내용

천주교 신부가 한문으로 저술한 과학기술서를 통해서도 천지창조를 포함한 창세기의 내용이 전달되었다. 이러한 책들은 「직방외기(織方外紀)」, 「기기도설(奇器圖說)」, 「만물진원(萬物眞原)」 등인데 이러한 책들을 통해 선교사들은 큰 저항 없이 창세기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다.

1) 「직방외기(織方外紀)」

「직방외기」는 예수회 선교사 알레니(Aleni, 艾儒略, 1582~1649) 저술의 세계 인문지리서로 1623년 중국 항주(杭州)에서 6권으로 간행되었다. 『직방외기』를 저술한 알레니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천문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내면적인 목적은 우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의 의지대로 천체와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²⁸⁾ 따라서 자연스럽게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야기 하게 되고 중국과 조선의 독자들도 거부감 없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었다. 천지창조 이야기는 직방외기 서문에서 특히 강조되었는데 이지조(李之藻), 양정균(楊廷筠), 구식곡(瞿式穀), 허서신(許胥臣) 등의 서문과 알레니의 서문에서 천지창조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양정균은 서문에서 “서양의 신부들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데, 때로는 일들을 빌려서 계제로 삼으니, 방법을 씬이 여러 가지였다”고 하면서 천문지리학을 활용하여 창조주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²⁹⁾

또한 알레니는 서문 말미에 “천지간의 온갖 것을 창조하신 한 분 위대한 주재자를 생각하여 흔들리지 않고 밝게 그를 섬겨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었다.³⁰⁾

그리고 「직방외기」는 우주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알레니는 천동설(天動說)을 바탕으로 우주관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양정균은 서문에서 구중천(九重天)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³¹⁾ 구중천은 주희가 밝힌 것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일월성신이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가장 바깥 원은 가장 맑으며 끝이 없다고 하였다. 서양의 ‘12중천설’이 동양의 구중천설과 만나면서 천주교 신부들은 구중천설로 우주를 설명하였다.³²⁾

「직방외기」는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유대국(如德亞國),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특히 길게 이야기 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든 뒤에 처음으로

京)에서 간행되었다.

27) Diego de Pantoja, 박유리 역, 「칠극(七克)」(일조각, 1998), 339-340. 「칠극(七克)」은 1614년 예수회 선교사 뻬또하(Diego de Pantoja, 1571-1618)에 의해 저술되었다.

28) Aleni, Giulio, 천기철 역, 「직방외기: 17세기 예수회 신부들이 그려낸 세계」(일조각, 2005), 366-367.

29) 위의 책, 35.

30) 위의 책, 52.

31) 위의 책, 30-31.

32) 위의 책, 58, 각주 7.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1530년 이미 발표되었지만 예수회 신부들은 로마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천동설을 전파한 것이다. 신부들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12중천설을 따르고 있었다.

인류를 탄생시킬 때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은 6천여 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12지파의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들의 이야기, 성전 건축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 베들레헴에서의 예수 탄생과 예수의 사역, 그리고 12제자와 1600여 년의 교회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³³⁾ 또한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한 분 하느님이 진실한 주인이다”고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하며, 사랑하고 우러러 받들어 따라야 할 이는 오직 한 분의 하느님이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하였다.³⁴⁾

또한 소돔과 사해를 소개하였는데 위치를 잘못 파악하여 알려주었다. 왜냐하면 터키 국가를 소개하면서 “그 서북쪽에는 소돔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³⁵⁾라고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요셉 이야기는 이집트를 소개하면서 함께 소개하였다; “옛날에 7년 동안 크게 흉년이 들었고, 이어서 7년 동안 크게 흉년이 든 적이 있었다. 그때 천주교인 가운데 다가올 일을 미리 아는 성인 요셉이 있었다.”³⁶⁾

이처럼 ‘아브라함과 12지파의 이야기,’ ‘소돔 이야기,’ ‘요셉 이야기’ 등은 그 어느 교리서에도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었는데 과학 기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운 점이다. 또한 서양의 새로운 학문인 과학 기술에 관심이 많은 선비들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과학 기술에 관한 정보로 간주하면서 인용하기도 하고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기도 하여 자연스럽게 창세기의 내용이 전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2) 「기기도설(奇器圖說)」

「기기도설」은 예수회 신부 테렌츠(Johann Terrenz 鄒玉函, 1576-1630)의 구술을 바탕으로 왕징(王徵, 1571-1644)이 1627년 출간한 과학기술서인데 기계들과 그 원리가 되는 역학적 지식을 도해한 책이었다. 원래 이 책의 이름은 「원서기기도설록최(遠西奇器圖說錄最)」였는데 흔히 줄여서 「기기도설」이라 불렀다.³⁷⁾ 이 책이 유명해진 것은 정조(正祖)가 직접 이 책을 정약용(丁若鏞)에게 주어 기중기를 고안하도록 한 책이었기 때문이다. 기중기 덕택으로 1789년 한강에 배다리를 놓을 때와 1792년 수원에 성을 쌓을 때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천지창조와 타락 사건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다.

人之始祖亞堂 而造物主造有天地, 卽造有人之始祖. 名阿當者 與其妻名厄禰者 … 阿當與厄禰不尊主命 犯誠得罪以後…阿當始作耕田等器 (조물주가 천지를 만들어내고 곧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라는 이름의 사람과 그의 처 하와라는 이름의 사람을 만들어 냈으며 그 후 아담과 이브가 주의 명을 존중하지 않고 계를 어겨 죄를 받은 이후…아담이 밭가는 기계 등을 만들기 시작해서 스스로 의식(衣食)을 구했다. ...따라서 기계의 사용이 모두 시조(즉 아담)의 창제(創制)로부터 비롯되었다.)³⁸⁾

이처럼 기계의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천지창조와 에덴동산의 타락사건을 끼워 넣어 자연스럽게 창세기의 내용이 전달되도록 한 것이다.

3) 「만물진원(萬物眞原)」

33) 위의 책, 104-108.

34) 위의 책, 109-112.

35) 위의 책, 100.

36) 위의 책, 216.

37) 김영식, “17세기 중국의 기계와 역학에 대한 관념: 왕징(王徵)의 「기기도설(奇器圖說)」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Vol.28 No.1 (2006), 2.

38) 윗글, 7-8.

「만물진원」은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중국 선교사 알레니(Julius Aleni, 艾儒略, 1582-1649)에 의해 저술되었는데 만물의 근원이 천주(天主)임을 주장하며 자연과학을 논한 것으로 1628년 북경에서 발간되었다. 『만물진원』이 언제 조선에 전래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김건순이 1801년 공초(供招)에서 진술한 기록에 의하면 1789년 삼전동인(三田洞人)에게서 만물진원을 얻어 보았다고 자백한 적이 있었기에 적어도 1789년 이전에 조선에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⁹⁾

「만물진원」은 천주께서 순식간에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강조한 후, 첫째는 천당인 하늘과 땅을 조성하였다고 하였는데 땅 아래에 지옥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는 땅 위에 물이 있고 물이 변화하여 기(氣)가 되고 기가 올라가 불이 되었다고 하였다. 만물진원에서도 천주실록과 같이 동양의 철학이 담긴 기(氣)를 언급하고 있다.

셋째는 초목과 화초 등 식물을 만드시고 땅 가운데 낙토(樂土) 즉 에덴동산을 창설하여 사람이 살도록 하셨다고 하였다. 그리고 넷째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상세한 것은 역법책(曆法書)을 보라고 하였다. 즉 천문과학적 지식과 창조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다섯째는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만드셨음을 밝히고, 마지막에는 아담과 하와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였다. 특히 천주께서 사람을 잘 만드셨음을 강조하였는데 신령한 마음이 있어 천신(天神)과 같다고 하였다. 또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다고 하였다.⁴⁰⁾

「만물진원」은 천지창조에 대해 시작하면서 “천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공을 자세히 알고자 하면 반드시 천주교의 고경(古經)과 성전(聖傳)을 살필 것이다(欲詳知 天主造天地之功 必須按 天主古經 及諸聖所傳)”라고 하였다.⁴¹⁾ 여기서 말하는 ‘고경(古經)’이란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1628년 당시 중국에 구약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인데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당시에 마테오리치가 “성경의 글과 중국의 글은 같지 않습니다. 비록 완역(完譯)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요지는 이미 번역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부분 번역 혹은 발췌 번역 형식으로 구약이 번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⁴²⁾

4. 한국인이 저술한 신앙서적

1) 「성교요지(聖教要旨)」

「성교요지」의 원문은 광암 이벽(1754-1785년)이 고대 시경(詩經)을 본받아 4언(四言)으로 된 한시체(漢詩體)로 저술한 것이다. 이벽은 1785년 이전에 「성교요지」를 저술하였으며 내용은 본문과 주기(註記)로 구성되어 있다. 「성교요지」의 한글 번역본은 1812년(순조 12) 이전에 번역된 것으로 보이며, 주기를 제외하고 한문체의 본문만을 의역해 놓았다.

내용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부분적으로 요약하였는데 구약은 1-2편에 요약되어 있다. 「성교요지」의 제1편에는 천지창조와 에덴동산의 타락사건, 제2편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와 노아와 홍수 이야기가 나타나 창세기 1-9장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³⁾ 신약은 3-15편에 요약되어 있고, 16-49편에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31편에는 창조의 신비와 원리를 깊이 탐구하라고 격려하고 있고, 32편과 33편에서는 자연을 살펴볼 때

39) 한국교회사연구소편, 「한국천주교회사 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189.

40) 鄭安德編, 「萬物眞原」明末清初耶蘇會思想文獻彙編 第八冊 (北京大學宗教研究所, 2000), 23-25.

41) 위의 책, 23.

42) 마테오 리치, 송영배 역, 「천주실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176-177.

43) 이벽, 하성래 역, 「성교요지(聖教要旨)」 (성황석두로가서원, 1986), 36-42.

하나님의 변화와 조화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35편에도 산과 바다의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조된 자연의 오묘함을 노래하였다.

천지창조에 관한 것은 1편에서 노래하였는데, 6일 동안 창조했다는 사실과 흠을 빚어 사람을 만든 사실, 그리고 가정을 꾸민 사실과 선악과를 먹은 사실 등을 노래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점에 강조를 두어 첫 번째 창조 설화(창 1:1-2:4a)를 강조했지만, 이벽은 “옛새 동안 힘들여 일하시어... 마침내 흠을 정성껏 빚어서”라고 하면서 두 번째 창조 설화(창 2:4b-25)를 강조했다.⁴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제시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습에서도 나타나는데 바로 자애로운 대군대부(大君大父)라는 동양적인 표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⁴⁵⁾ 이와 더불어 “세상 사람 나기 전 이미 상제 계시니”라고 시작되는 이벽의 창조시편은 인간 중심으로 해석된 시편이었다. 그리고 제2편에서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노아의 홍수에 이르는 사건들에 대해 간략하게 노래하였다.

또한 하나님을 상제(上帝) 혹은 상주(上主)라 불렀는데 이들은 유교적인 표현이다. 이와 더불어 창조를 개벽에 해당하는 벽(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은 유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선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이벽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⁴⁶⁾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이벽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노아의 홍수에 이르는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기존의 한문교리서나 한글로 번역된 교리서에는 주로 천지창조와 타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창세기 4장 이후의 내용이 포함된 교리서를 찾아 볼 수 없다. 가능성을 찾아본다면, 첫째,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구약성경인 고경(古經)이 조선에 들어와 읽혀지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1628년 간행된 「만물진원」에서 고경(古經)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황사영백서에 “이벽이 비밀히 성서를 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사용한 용어 ‘성서’는 천주교에서 성경과 교회의 전승을 포함하는 용어로 알려져 있지만 구약성경을 읽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이벽은 이승훈이 북경에 가는 길에 “신경(神經)한 부만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이승훈이 구약성경인 고경(古經)을 가져다주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 둘째, 이승훈과 같이 북경에 가서 신부들을 만나고 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약의 내용을 전해 들었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벽이 창세기의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벽과 같은 선비들이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창세기가 18세기 후반에 이미 조선에 알려져 있었고 해석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주교요지」

「주교요지」는 한국 사람이 한글로 지은 최초의 교리서로서 정약종(丁若鐘)이 저술하였다. 저술 연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1790년대로 짐작된다. 「주교요지」가 어떤 책인지 알려면 황사영의 백서(帛書)를 보면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일찍이 그는 교우들 가운데 무식한 이들을 위해 우리나라의 한글로 주교

44) 제1편, “六日力作... 濬辯和土.” 이성배, 「유교와 그리스도교」(왜관: 분도출판사, 2001), 54.

45) 제2편 “父意(아버지의 뜻).” 위의 책, 56.

46) 배요한,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 이벽의 「성교요지」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41집(2011), 405.

요지 2권을 저술하였는데 널리 성교(聖敎)의 여러 가지 책에서 인용하고 자기의 의견을 보태서 지극히 쉽고 분명하게 설명하여 어리석은 부녀자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책을 펴 보기만 하면 환히 알 수 있고, 한 군데도 의심스럽거나 모호한 데가 없었습니다.⁴⁷⁾

옛날에, 책이란 개인이 읽을 수도 있지만 누가 낭독하면 듣는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정약종이 주교요지를 한글로 저술한 목적은 조선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성경 내용과 기독교의 교리를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약종은 그 때까지 조선에 전래된 성경과 교리서를 참조하여 주교요지를 저술하였지만 자신의 경험과 한국적 정서를 충분히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단어 다음에는 작은 글자로 내주(內注)를 달아 내용을 해석하였다. 예를 들면 ‘아담’은 ‘아담은 황토라 말’이라 해석하였고 ‘에와’를 해석하기를 ‘에와는 못사름의 어머니라 말’이라 하였다.⁴⁸⁾ 이러한 해석은 창세기 3장 20절의 본문과 유사하다; “...하와와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리고 ‘원조’를 해석하기를 ‘원조는 웃음 조상이라 말이니 아담과 에와-라’고 하였다.⁴⁹⁾

천지창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로부터 천지를 내시고” 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상품천신(上品天神)의 이름을 ‘루지불’과 ‘미가엘’이라 비교적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⁵⁰⁾ 그리고 “한 번 명하시어 경각(頃刻) 사이에 빛을 내시고” 하면서 말씀 한번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여 해석하였다.

한문교리서와 한글교리서 모두 통틀어서 가장 구약성경의 본문과 근접하게 해설하고 있는 교리서는 「주교요지」다. 특히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다는 부분은 그 어느 교리서에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창세기와 동일하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어 세월과 주야를 나누시고”라는 대목은 “...낮과 밤을 나눠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창 1:14)라는 창세기 본문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벽을 비롯하여 초기 천주교 지도자들이 구약성경을 읽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모습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는 모습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구약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다. 특히 하와와 뱀의 대화 부분은 성경(창 3:1-6)을 읽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아마도 정약종은 창세기를 읽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약종은 하와와 뱀의 대화부분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마귀가...그 복을 잃게 하고자 하여 지옥으로부터 나와, 먼저 에와를 유인하여 가로되, “지당(디당)의 백 가지 과실을 다 먹되, 어찌하여 오직 선악과(선악과)를 천주가 너희더러 먹지 말라 하시뇨?” 대답하되 “만일 이 실과를 우리가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연고이로다.” 마귀 속여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네가 만일 이 실과를 먹으면 슬기가 천주와 같아져 모를 일이 없겠기에, 천주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니라.” 에와가 그 꾀임을 듣고 망녕되어 천주와 같을 마음을 내어, 인하여 따 먹고 또 아담을 권하여 먹으라 하매, 아담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받아 먹으니...⁵¹⁾

47) 황사영, 김영수 역, 「황사영백서」 (성황석두루가서원, 1998), 50-53.

48) 정약종, 「주교요지」 (성황석두루가서원, 1986), 57-58.

49) 위의 책.

50) 일반적으로 천주교 신학자들은 천신들을 上品, 中品, 下品으로 나누었다.

51) 정약종, 위의 책, 58-59.

이처럼 이벽과 정약종이 구약성경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할 길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당시 창세기가 중국에서 번역된 일이 있었고 그 성경이 필사되어 조선까지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예수회 신부인 뽀와로(Louis de Poirot, 賀清泰)는 1790년 이전에 한문성경과 만주어로 된 만문성경(滿文聖經)을 번역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에서 활동한 예수회 신부인 판지(Joseph Panzi, 藩廷璋)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⁵²⁾ 한문으로 번역한 신구약 성경을 古新聖經(고신성경)이라 하였고,⁵³⁾ 창세기를 두 권으로 나누어 번역하였는데 이름을 ‘造成經之總論(조성경지총론)’이라 하였다.⁵⁴⁾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번역들은 출판되지 못하였고 원고와 그 사본들이 남아 있을 뿐이다.⁵⁵⁾

천주교의 다른 교리서와 마찬가지로 에덴동산(지당)에는 죽음도 병도 없다고 하였으며 수명을 채우면 하늘에 올라 신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죄를 지은 후에는 아기도 죄인이라고 단정하였다; “... 그 만세자손이 한가지로 원죄로 말미암아, 벌을 입어 죄의 더러움(더러움)을 물들어 태어나는지라. 그런 고로 성경(성경)에 일렀으되, ‘어린 아이 땅에 떨어지면 다 죄인이라.’”⁵⁶⁾

5. 천주교 비판서를 통해 전파된 창세기

심지어 천주교 교리를 비판하는 학자에 의해서도 창세기의 내용이 전달되었다. 1840년경 이규경은 「五洲衍文長錢散稿(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기기도설」을 인용하여 “인류의 시조는 아담인데, 조물주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땅 위의 살기 좋은 곳에 두었으나 계울을 어겨 굶주림과 추위, 병과 죽음이 있게 되었고, 남자는 농사를 여자는 아이 낳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아무런 비판없이 전제하였다. 또한 이규경은 “그들이 높이 받드는 천주는 바로 옛 성현이 말한 상제이고 선유들이 말한 하늘의 주제이므로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데...” 하면서 천지창조와 주물주인 천주의 존재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견해를 펼쳤다.⁵⁷⁾

이기경(1756-1819)은 천주교를 비판하기 위해 「벽위편(關衛編)」을 저술하였는데 그 가운데 천지창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기경은 천주실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1편 천주가 처음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고, 안양(安養)함을 논함”이라는 천주실의의 소제목을 먼저 표시하고, “이른바 천주가 천지와 만물을 만들고 주재하며 편안히 길러낸다는 것이 이 편 의 요령이다”라고 요약한다. 그리고 비판하기를 “천지의 이루어짐이 천주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이치로 보아도 조짐이 없고 경전(經傳)에도 근거가 없으니, 바로 망녕된 설에서 나온 것이다”고 하였다.⁵⁸⁾ 이처럼 천주교를 비판하는 글을 통해서도 천지창조의 내용이 전달되고 있었다.

실학자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천학문답(天學問答)」에서 「천주실의」와 「진도자증(眞道自證)」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들을 비판하였다.⁵⁹⁾ 그런데 인용한 본문은 아담과 하와를 비

52) 김동소, “최초 중국어·만주어 성서 역성자 하청태 신부,” 「알타이학보」 13호 (2003), 28-30.

53) 당시에는 구약을 고경(古經), 신약을 신경(新經)이라 불렀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19세기 말엽에도 구약을 古經(고경), 혹은 古聖經(고성경)이라 불렀다.

54) 徐宗澤, 「明清間耶穌會士譯著提要」(世紀出版集團, 2010), 13.

55) 김동소 교수는 일본에서 발견한 원고가 하청태 신부의 육필 원고라 주장하였다. 김동소, 윗글, 28-30.

56) 정약종, 위의 책, 60.

57) 원재연, “五洲 李圭景의 對外觀과 天主教 朝鮮傳來史 인식 - <西洋通中國辨證說과>과 <斥邪教辨證說>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제17집 (2001-12), 142.

58) 이기경, 이만채 편, 김시준 역주, 「天主教 傳教 迫害史: 關衛編」(삼경당, 1984), 71-72.

못하여 에덴동산과 타락사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본문이었다. 따라서 천지창조와 에덴동산의 타락 사건을 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16세기 말부터 조선에 전파된 천지창조를 포함한 창세기의 해석사를 추적함으로써 한국 구약 해석사의 시작 시점을 20세기가 아니라 16세기 말까지 앞당기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주목한 천지창조와 타락에 관한 것은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된 초기부터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문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던 조선의 선비들의 상황을 주목하면서 한문으로 저술되어 조선에 전파된 교리서 가운데 「천주실록(天主實錄)」, 「교요서론(教要序論)」, 「진도자증(眞道自證)」 등을 구약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천지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설하였고 기(氣)의 개념을 활용하여 동양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타락의 심각성을 원죄의 개념을 강조함으로 제시하였고 당시의 천문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구중천(九重天)으로 하늘을 설명하고 천신과 마귀의 존재에 대해 상세히 해설하였다.

천주교 신부가 한문으로 저술한 과학기술서인 「직방외기(織方外紀)」, 「기기도설(奇器圖說)」, 「만물진원(萬物眞原)」 등을 통해서도 천지창조를 포함한 창세기의 내용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서구학문에 목말라있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서는 큰 저항 없이 창세기의 내용이 수용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한국 선비들에 의해 저술된 「성교요지(聖教要旨)」와 「주교요지」를 분석하였다. 한시(漢詩)로 작성된 「성교요지(聖教要旨)」는 천지창조 뿐 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까지 해석하였으며 자연의 오묘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국적 시편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글로 작성되어 널리 읽혀진 「주교요지」는 18세기 말까지 전파된 교리서들을 요약했을 뿐 만 아니라 한국적인 자료와 경험을 많이 활용하여 한국인들이 쉽게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였다. 또한 「주교요지」는 그 어느 교리서보다 구약 내용에 충실한 교리서였다.⁶⁰⁾

59) 안정복, 「天學問答」 或曰 13. 강세구, 「순암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 연구」 (혜안, 1996), 300-302.

60) 천지창조에 대해서 「천주실록」, 「만물진원」, 「주교요지」, 창세기 등의 내용을 비교하여 표를 만들면 아래와 같다.

	천주실록	만물진원(순서)	주교요지	구약(창세기)
1일	땅, 물, 하늘, 천신(天神)	하늘, 대지(지옥, 연옥)	천지, 빛, 천신	빛(낮), 어둠(밤)
2일	구중천(九重天), 불(火), 기(氣)	물, 천신, 기(氣), 불	기, 불, 층층의 하늘	궁창
3일	땅과 물을 나눔, 지당(地堂, [에덴동산])	산, 평지(낙토), 바다, 식물	산과 바다를 나눔, 초목과 곡식	땅과 물을 나눔, 채소, 나무
4일	일월성신(日月星辰)	해, 달, 별	해, 달, 별	해, 달, 별
5일	물고기, 새	물고기, 새	물고기, 짐승	물고기, 새
6일	짐승, 사람	짐승, 사람	기는 짐승, 사람	짐승, 사람

심지어 천주교 교리를 비판하는 학자에 의해서도 창세기의 내용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五洲衍文長錢散稿(오주연문장전산고)」, 「벽위편(關衛編)」, 「천학문답(天學問答)」 등이다.

이처럼 천지창조 설화를 포함한 창세기의 내용이 이미 16세기 말부터 조선에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해지고 또한 해석되어 왔다. 따라서 1900년대부터 구약성경 해석사를 시작하는 관행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논쟁점은 '고경(古經)'에 대한 것이다. 「교요서론(教要序論)」과 「만물진원(萬物眞原)」, 그리고 「성교요지(聖教要旨)」와 「주교요지」를 분석해 볼 때 한문 구약성경인 '고경(古經)'이 존재했을 가능성과 조선에 들여와 읽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발견했지만 아직까지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안타깝다.

참고문헌

- 강세구, 「순암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 연구」(혜안, 1996), 289-314.
- 김동소, “최초 중국어. 만주어 성서 역성자 하청태 신부,” 「알타이학보」 13호 (2003), 15-39.
- 김영식, “17세기 중국의 기계와 역학에 대한 관념: 왕징(王徵)의 「기기도설(奇器圖說)」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Vol.28 No.1 (2006), 1-27.
- 노용필, 「한국천주교회사의 연구」 한국사학, 2008.
- 마테오 리치, 송영배 역, 「천주실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문희석, 「한국교회 구약성서해석사: 1900-1977」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 문희석 편, 「구약성서해석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 배요한,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 - 이벽의 「성교요지」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41집 (2011), 393-415.
- 서종태, 한건 편, 「천주교신자재판기록 (상)」 서울: 국학자료원, 2004.
- 徐宗澤, 「明清間耶蘇會士譯著提要」世紀出版集團, 2010.
- 안정복, 「天學考」 『順菴先生文集』 권17.
- , 「天學問答」 『順菴先生文集』 권17.
- 원재연, “五洲 李圭景의 對外觀과 天主教 朝鮮傳來史 인식 - <西洋通中國辨證說>과 <斥邪教辨證說>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제17집 (2001), 121-157.
- 유승상, “예수회 중국 활동의 선구적 성과인 「천주성교실록」에 대한 초보적 연구,” 「신학과 철학」 18호 (2011), 45-75.
- 이기경, 이만채 편, 김시준 역주, 「天主教 傳教 迫害史: 關衛編」삼경당, 1984.
- 이벽, 하성래 역, 「聖教要旨」 황석두루가서원, 1986.
- 이성배, 「유교와 그리스도교」 왜관: 분도출판사, 2001.
- 鄭安德編, 「萬物眞原」明末清初耶蘇會思想文獻彙編, 第八冊, 北京大學宗教研究所, 2000.
- , 「眞道自證」明末清初耶蘇會思想文獻彙編, 第二十冊, 北京大學宗教研究所, 2000.
- , 「天主實錄」明末清初耶蘇會思想文獻彙編, 第一冊, 北京大學宗教研究所, 2000.
- 정약중, 「주교요지」 성황석두루가서원, 1986.
- 정중호, “18세기 이전 중국과 한국의 십계명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50집 (2013), 318-347.
- 한국교회사연구소편, 「한국천주교회사 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 황사영, 김영수 역, 「황사영백서」 성황석두루가서원, 1998.
- Aleni, Giulio, 천기철 역, 「직방외기: 17세기 예수회 신부들이 그려낸 세계」 일조각, 2005.
- de Pantoja, Diego, 박유리 역, 「七克」 일조각, 1998.
- Ruiz de Medina, Juan G., 박철 역, 「한국천주교전래의 기원」 서강대학교출판사, 1989.
- Verbiest, Ferdinand, 노용필 역, 「教要序論」 한국사학, 2013.
- Wang, Tai Il, “Retrospect and Prospect of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구약논단」 37 (2010), 12-26.